

III-D-2					
제목	국문	국내 HIV 감염의 역학적 특성 및 추정 유병률			
	영문	Research for epidemiologic characteristics and seroprevalence rate of HIV in Korea			
저자 및 소속	국문	고운영, 기미경, 김성수, 유정식, 양병국, 이주실 ¹ , 유병희 ² , 이종구 ² 국립보건원 전염병관리부 역학조사과, 국립보건원 바이러스부 면역결핍연구실 ¹ , 국립보건원 전염병관리부 방역과 ²			
	영문	Un Yeong Goh, Mee Kyung Kee, Sung Soo Kim, Jung Sik Yoo, Byung Guk Yang, Joo Shil Lee ¹ , Byung Hee Yoo ² , Jong Koo Lee ² <i>Division of Epidemiologic Investigation, Department of Infectious Diseases Control, Center for AIDS Research, Department of Virology¹, Division of Communicable Disease Control, Department of Infectious Diseases Control², National Institute of Health</i>			
분야	역학 [전염성질환]	발표자	고운영 [일반회원]	발표형식	구연
진행상황	연구중 → 완료예정시기 : 2001년 12월 30일				
<p>1. 목적</p> <p>현재와 미래의 HIV/AIDS 규모의 파악과 경향의 예측은 HIV/AIDS 진단과 치료에 필요한 보건자원을 확보하고 예방정책을 개발하는 등의 관리대책 수립에 필수적인 자료이다. 우리나라는 국내 이성간 성접촉이 HIV의 주요 전파경로이며 1993년 이후 토착화된 양상을 보이며 최근 몇 년간 HIV 감염자 증가폭이 증가하고 있어 HIV 감염은 앞으로 우리나라의 중요한 보건학적 문제가 될 것이다. 그러므로 HIV/AIDS 관리정책의 기본 자료인 역학적 특성과 유병률 추계연구를 통하여 국가 HIV/AIDS 관리의 기본자료를 산출하고자 한다</p> <p>2. 방법</p> <p>1985년 이후 국내 감염자의 역학적 특성을 분석하여 국내 HIV 감염을 추정에 필요한 HIV 감염의 기본적인 특성을 파악하였으며, 1985년 부터 현재까지 보건복지부가 수행한 HIV 검사자료를 확보하여 헌혈자, 군인, 임산부의 HIV 감염율을 구하여 일반인의 HIV 감염율을 산출하였다. 28개 윤락지역을 중심으로 구축된 윤락여성 및 남성 성병환자 HIV/STI sentinel surveillance 자료를 분석하여 고위험군의 seroprevalence rate를 산출하였다. 일반인구 및 고위험군의 seroprevalence rate 자료를 비교 검토한 후 국내 HIV 감염율을 추정하였다.</p> <p>3. 결과</p> <p>1985년 국내에서 첫 HIV 감염자가 발견된지 15년이 경과한 2000년 현재 누적감염자는 1,280명로서 연도별 신규 HIV 감염자는 1990년 이후 5년 마다 100%씩 증가하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으며, 1994년~1998년까지의 연평균 증가율은 12.8% 수준이었으나 1999년도는 전년대비 44.2%, 2000년도는 17.7% 증가하는 등 최근들어 증가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다. 2000년 말 현재 누적감염자 1280명 중 남성은 87.3%를 차지하고 있으며 성비는 7:1로서 국내 HIV 감염이 고위험군 남성을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으며, 1992년 이후 여성 감염자가 증가하여 일반인구로의 확산이 진행되고 있음을 반영하고 있다. HIV 감염자의 연령별 분포는 성적으로 활동성있는 20-39세가 전체 감염자의 66.9%를 차지하고 있으며 1995년 이후 50세 이상이 증가하고 있다. 전체</p>					

감염자 중 감염경로가 밝혀진 경우의 96.3%가 성접촉에 의한 감염으로 성접촉이 국내 HIV 감염의 주요 감염경로이다. 성접촉에 의한 감염 중 국외 감염이 차지하는 비중은 1995 년 이후 15~20%로 감소하여 1990 년대 들어서면서 HIV 감염이 국내에서 토착화되는 현상을 반영하고 있다. 성접촉에 의해 감염된 남성 중 동성애를 통해 감염된 경우는 1991 년부터 증가하여 1992 년 이후 20~45%의 분포를 보이고 있다. 이는 동성애가 국내에서 주요 HIV 의 감염경로임을 시사하며 동성애의 HIV 감염의 특성을 밝히는 것이 국내 HIV 감염의 특성을 이해하는 데 중요함을 반영한다. 일반인 및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한 seroprevalence data 로부터 산출된 HIV 양성율은 임신부 0.0003%, 군인 0.001%, 헌혈자 0.0011%, 윤락여성 0.0175%, 남성 성병환자 0.0525%였다. 국내와 HIV 감염의 역학적 특성이 유사하고, HIV 감염률이 유사한 국가의 고위험군과 일반인구의 감염률의 차이를 국내 자료에 적용하여 일반인의 국내 HIV 감염률을 추정한 결과 0.0131%였다.

4. 고찰

국내 HIV 감염의 역학적 특성 파악과 HIV 감염률은 HIV/AIDS 예방정책 수립에 필수적인 자료이다. 본 연구를 통하여 국내 HIV 감염의 고위험군에 대한 감시체계의 중요성을 파악하였다. 이에 현재 구축된 윤락여성과 남성 성병환자를 대상으로 한 감시체계를 강화하고 동성애자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여 주요 고위험군에 대한 혈청역학적 연구와 성행태 조사를 병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더불어 본 연구결과를 통해 밝혀진 HIV 의 역학적 특성과 감염규모는 우리나라 HIV/AIDS 정책의 기본 방향과 예방정책을 수립하는데 중요한 자료로 활용될 것이라 기대된다.